日 불교계 우크라이나 위한 종소리

시네마현 불교회, 3월 8일 발기
우크라이나 비극 관심 촉구하며
매일 2시, 각 지역서 범종 울려

박영빈 객원기자


우크라이나에 다시금 평화의 아침이 오길 바라며 범종을 울리는 스님. 사진출처=산닌 중앙신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전쟁 종식과 평화를 염원하는 종소리가 울리고 있다. 일본 불교계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의 종 운동'을 시작했다. 일본 '츄니치 신문'과 '산닌 중앙신보'는 3월 22일 일본 각지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에 대해 보도했다.

3월 8일 일본의 시마네현 불교회가 발기한 '평화의 종 운동'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범종을 울리는 캠페인이다. 시마네현 불교회는 현 내의 13개 시, 22종단의 1100여 개의 사찰과 35개의 불교단체가 가입한 거대불교 단체다. 시마네현 불교회는 최근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세계평화에 대한 가치를 중요 주제로 삼고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는 해당 주제로 전일본 불교도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마네현 불교회의 회장인 시미즈타니 젠케이 스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힘은 작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울림이 퍼진다면 끝내 부조리한 폭력을 완화하고, 평화를 되돌리는 힘이 된다"며 캠페인을 시작한 계기를 전했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사찰과 단체는 가능한 범위에서 매일 우크라이나 현지 시간 오전 7시(일본시간 오후 2시)에 맞춰 범종을 울린다. 매일 조석예불 전에 울리는 것과는 다른 시간에 타종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오길 바라는 뜻이다. 시마네현 불교회는 타 지역의 불교회나 사찰, 단체 등에 함께해 줄 것을 바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마네현 불교회의 뜻에 따라 다른 도시의 사찰에서도 평화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시카와현 하쿠산시에 소재한 토쿠쇼지(德證寺)는 미국에 선을 전한 스즈키 다이세츠의 영문 휘호가 새겨진 범종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울렸다.

토쿠쇼지의 신도회장인 후타기 타케노부는 "토쿠쇼지 범종은 2차 대전 당시 금속공출로 소실된 후 전쟁이 끝나고 새로 주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당시 사찰과 인연이 있던 스즈키 다이세츠 선생이 특별히 영어로 '평화와 자유의 종(The Bell of Peace and Liberty)'이라는 휘호를 주었다. 종 이름과 같이 우크라이나에 빠른 평화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운동 발기인 중 한 명인 시마네현 불교회의 야기라 잇카쿠 스님은 "전 세계 사람이 '이상하다'고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베트남전 역시 전 세계의 여론이 움직여 멈췄던 전례가 있다. 일본에서도 이런 운동이 있음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전하고 싶다"며 "일본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도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전한다.

日불교계 위기…사찰 이어 종단도 소멸?

저출산·고령화 문제 떠오르며
군소종단·불교단체도 불투명
관혼 상제 대한 무관심 커지며
젊은 세대의 사찰 구심점 소멸


사찰에 이어 미래에는 전통적인 종단도 소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사진출처=프레지던트 온라인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불교계 역시 출가자 감소가 가시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지역 사찰의 폐사와 공찰 문제가 심각한 일본에서 최근 종단마저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3월 26일 해당 문제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일본은 예로부터 종파불교로 불릴 정도로 종단간의 종지와 특성이 뚜렷하다. 약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불교는 현재 종교법인과 불교계 신흥종교를 모두 포함해 156개 종단이 등록돼있다. 종교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우카이 히데노리 스님은 "1939년 종교단체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본불교는 13종 56파, 전시 종교통제를 위한 법령하에서도 28개의 종단이 있었다"며 "일본 종파불교 역사의 뿌리가 매우 깊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보통 일본 불교계에서는 13종 56파를 '전통불교교단'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 종단과 단체는 '불교계 신종교'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전통불교교단 중 가장 세가 큰 종단은 정토진종으로 종단 내 두 파(혼간지파, 오타니파)를 모두 합쳐 1만 8874개소의 사찰이 등록돼 있다. 이어서는 선종인 조동종으로 1만 4593개 사찰이 등록돼 있다. 한편 대불로 유명한 나라의 토다이지를 총본산으로 하는 화엄종의 경우 108개소 사찰이, 8세기에 성립된 율종은 28개소 사찰뿐이다. 우카이 스님은 "소규모 종단 중 지방도시에 소재한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찰은 물론 종단의 존속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물론 지방도시 인구 감소에 따른 신도수 감소로 사찰을 지탱하는 근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출가자 감소도 문제다. 규모가 큰 종단의 경우 상주하는 스님이 없는 사찰이라 하더라도 인근 다른 사찰 주지가 주지를 겸직할 수 있지만, 소규모 종단의 경우 결국 공찰이 폐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카이 스님은 "이대로라면 2040년에는 현재 전국 7만 7000여 사찰이 5만여 개 정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종단 역시 소멸하거나 다른 대형 종단에 합병 혹은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했다. 일본정부의 종교연감에 따르면 본산을 포함해 단 5개만이 등록된 종단도 존재한다. 이 종단의 경우 95년 종교연감에서는 11개였던 것이 반수 이상의 사찰이 종지가 유사한 타 종단으로 전종해 흡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젊은 세대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도 이런 현상에 한몫하고 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단가제도(檀家制度)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단가제도에서 한 집안과 한 사찰이 연결돼 사찰이 관혼상제를 주관해 주면서 관례적으로 사찰에 보시하거나 운영을 보조해왔으나, 그러한 구심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우카이 스님은 "전후 도시로 이전한 핵가족들을 상대로 불교계 신종교들이 세력을 키워왔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젊은 세대는 관혼상제에 있어 사찰과 불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쿠시나가르 여행 재개

베트남 불교 대표단 첫 방문
공항 개발 위한 발전금 전달


쿠시나가르 공항 전경.
사진출처=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2년 가까이 문호를 닫았던 인도에 다시금 성지순례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인도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은 3월 28일 쿠시나가르에 국제 불교 순례단이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와 함께 여행자들에 대한 비자를 중단했던 인도 정부가 최근 비자를 다시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2년간 중단됐던 쿠시나가르 정기 국제선이 재개됐다.

베트남 불교를 대표하는 '베트남 불교 승가(VBS)'의 회장, 틱뚝티엔(thich duc thien)스님이 이끄는 베트남·태국불교 대표단은 3월 27일 인도 정부로부터 특별 비행허가와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다. 이번 방문은 인도 정부가 국제 여행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국제 불교순례단의 공식적인 첫 방문이다.

VBS는 최근 하노이 주재 인도 대사관과 국제 불교경시대회를 공동 기획했다. 불교 경시대회의 우승자들로 이루어진 이번 성지순례단은 불교 4대 성지 및 다양한 불교유적지를 방문 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이륙한 전세기가 쿠시나가르에 착륙하자 지역주민들이 모두 공항으로 나와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했다. 또한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는 공식적으로 성지순례를 온 모든 인원을 환영하며 쿠시나가르에 머무는 동안 모든 지원을 약속한다고 발표했다.

쿠시나가르 국제공항은 지난해 10월 20일 완공됐으며 동남아 각 불교국가들간의 국제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이 공항은 그동안 열악한 교통편으로 방문이 어려웠던 입멸성지와 가까운 곳에 건설돼 다양한 불교 유적지와의 원활한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 불교 대표단은 국제공항 개발을 위한 발전금 1000달러(한화 약 130만원)을 전달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스리랑카 스님들, 정부에 국민 구제 촉구

물가상승으로 경제 위기
효율적 대책 수립 요구


스리랑카인들이 콜롬보의 한 주유소에서 가정용 등유를 구입하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다.
사진출처=가톨릭 아시아 뉴스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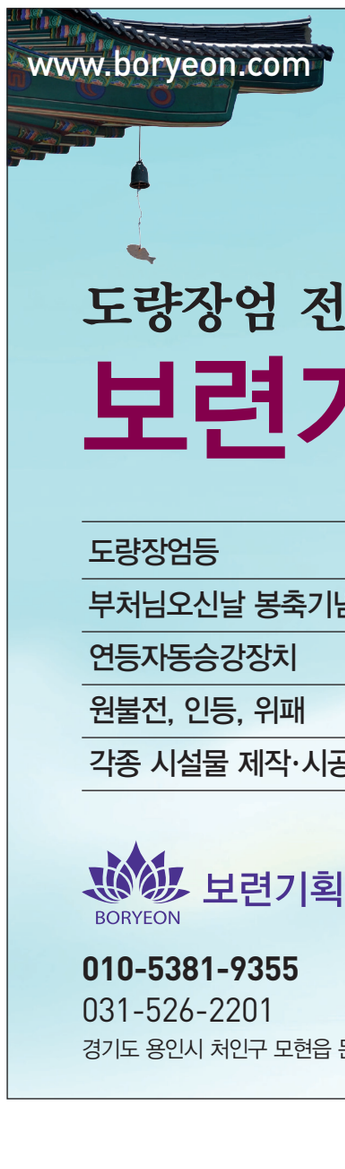
스리랑카 스님들이 정부에 경제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국가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홍콩 '가톨릭 아시아 뉴스 연합'은 3월 22일 스리랑카 스님들이 정부에 민생대책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고 전했다.

계속 되는 물가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스리랑카. 이에 정부는 중국에 25억 달러(한화 약 3천억 원)을 요청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휘발유와 경유를 사기 위해 주유소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으며 분유, 의약품, 식료품과 같은 일상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한 대기줄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수 천명의 스리랑카인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수 주간 대통령 집무실 밖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스리랑카 각 종단의 최고원로 스님들은 정부에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곤경에 즉각 반응할 것을 촉구했다. 말왓타 종단의 장로 티밧투와웨 스리 수망갈라 스님, 아스기리야 종단의 장로 와라카고다 그나나라타나 스님은 3월 21일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공공부채의 구조조정, 생활비 절감, 저소득층에 대한 구제, 자원낭비, 정재계의 부패를 막기 위한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또 경제위기에 직면해 무분별한 금융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필수물자 부족을 초래하는 사기범에 대한 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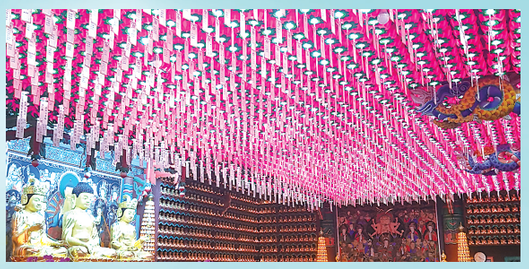
스님들은 라자팍사 대통령이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위해 선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칭찬하면서도, 국가 경제 건설을 위해 모든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과 소속을 불문하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곤경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